

<https://doi.org/10.22643/JRMP.2020.6.2.59>

Brave new world led by COVID-19

Jae Min Jeong^{1,2,3*}

¹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대한방사성의약품 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결국 11월 13일에 온라인으로 하였다. 또한 내년 5월에 프랑스의 낭트에서 할 예정이던 ISRS가 후년 5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때는 SRS President가 Jason Lewis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만은 예외로 현재 President인 Tony Gee가 계속 President를 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President가 되어서 한번도 ISRS 개최를 못해보고 끝내면 서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President-elect와 Director를 선출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 초에 선거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1년동안은 President-elect가 두 명인 상황이 된다. 이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묘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아무것도 안 하면 회원들이 너무 오래 학술활동을 하지 못해 방사성의약품 관련 학문의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SRS Board of Director 회의에서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온라인 ISRS 즉eSRS를 하기로 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학회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로 생각된다.

겨울이 되면서 더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영국, 남아공 등 여기저기에서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가 생겨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는 대체로 전염력은 더 강해지고 치사율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페인 독감이 2년만에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 능력이 없었는데도 2년만에 끝난 것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길 바란다. 그러면 백신이 없어도 저절로 없어지든지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 정도로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다위니즘을 따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여 벌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여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학문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관련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기

Received: December 29, 2020

Corresponding Author : Jae Min Jeong, Ph.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ng@snu.ac.kr

Copyright©2020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업가를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고 박해하는 우리나라의 풍조에서는 그 발전이 어렵다. 오늘 신문에 삼성전자의 이재용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났다.

나는 현재 시작하고 있는 제4차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하여 제5차 산업으로 될 것인가를 다위니즘으로 예측하여 책을 내었다. 그 제목은 “제5차 산업혁명의 진화론적 예측”이다.